



이현주 우리카드 영업추진 겸 마케팅본부장(오른쪽)과 차이지앤브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 대표가 '카드의정석 유니마일'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우리카드

휴가철 분주한 카드업계 저비용항공 고객 잡아라

우리·KB 등 'LCC 제휴 카드' 선봬

8월 여름 휴가와 9월 추석 연휴 등 해외 여행이 잦은 시즌을 맞아 카드업계가 저비용항공사(LCC)와 손잡고 제휴카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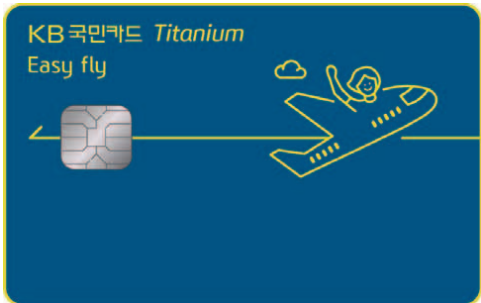
이용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저비용항공사 이용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갖춘 것이 특색이다.

우리카드는 유니온페이가 개발한 저비용항공사 통합포인트 플랫폼 '유니마일'로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6개 저비용항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정석 유니마일'을 내놓았다. 이용금액에 따라 유니마일 포인트 적립과 초과 위탁수하물 혜택 등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B국민 이지 플라이 티타늄 카드'를 내놓았다.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이 카드로 항공권을 구매하면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을 받는다.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이면 최대 1만 원, 1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3만 원, 150만 원 이상이면 최대 5만 원을 할인한다. 유료 부가서비스, 면세점, 호텔, 해외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도 에어부산과 제휴해 '에어부산 원큐 쇼핑 플러스 카드'를 출시했다. 연말까지 카드 발급 고객이 발급월로부터 5년 안에 에어부산 항공권을 구매하면 10만 원당 5000 하나머니를 적립한다. 또 쇼핑, 주유, 커피 등 생활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담았다.

정정욱 기자



▲KB국민 이지 플라이 티타늄 카드

정정욱 기자의 머니게임 | 비은행 실적이 가른 금융지주사 상반기 실적

은행 실적 뒤쳐진 신한금융 리딩뱅크 수성 '비은행의 힘'



5대 금융지주사의 2019년 상반기 실적에서 신한금융이 1위를 지켰다. 사진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진제공 | 신한금융

2019년 상반기 5대 금융지주 실적에서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주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신한금융은 업계 '리딩뱅크' 타이틀 수성에 성공했고, 하나금융은 3위에 다시 올랐다.

신한금융은 당기순이익이 상반기 전년 대비 6.6% 늘어난 1조914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1% 감소해 1조8368억 원에 머문 KB금융에 776억 원 앞섰다. 두 은행의 경쟁은 비은행 부문 실적에서 결과가 정해졌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금융지주사의 핵심 자회사인 은행 부문 실적에서는 KB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을 앞섰다. KB국민은행은 상반기 1조305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신한은행은 1조2818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신한금융은 비은행 부문에서 2월과 5월 오픈저리라이프와 아시아신탁을 각각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3위 경쟁 역

시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1분기에 희망퇴직 비용이 발생해 우리금융에게 3위를 내준 하나금융은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2045억 원을 기록해 1조1790억 원인 우리금융을 255억 원 앞섰다.

두 은행도 역시 은행 부문 실적에서는 우리은행이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1523억 원으로 1조338억 원인 하나은행보다 앞섰다. 하지만 1월 금융지주로 출범한 우리금융이 증권사와 생명보험사 등을 거느린 하나금융에 비해 비은행 부문에서 열세를 보이면서 결국 3위에서 밀려났다.

이렇듯 비은행 부문의 영업성적이 업계 순위를 정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잡으면서 앞으로 금융지주의 적극적인

비은행 인수·합병(M&A)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금융의 경우 4월 동양자산운용, ABL자산운용의 지분을 인수해 24일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았고 25일에는 국제자산신탁과 경영권 지분 인수 계약도 마쳤다. KB금융은 취약점으로 꼽히는 생명보험사 인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금융지주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리딩뱅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한금융과 KB금융의 실적 격차가 776억 원, 3위 권의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실적 격차가 255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희망퇴직 비용, 사측 매각 등 일회성 요인과 비은행 인수·합병(M&A) 여부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

한편 이번 상반기 실적에서 NH농협금융은 상반기 당기순이익 9971억 원을 달성, 전년(8295억 원) 대비 20.2% 증가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경제

13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우리금융, 8월까지 환경보호 캠페인

우리금융그룹이 8월 30일까지 환경보호 캠페인 '지구는 우리(WOORI)가 지킨다'(사진)를 진행한다. 우리금융 임직원은 환경보호 실천 서약을 하고 종이컵 사용금지, 자리 비울 때 컴퓨터 모니터 끄기, 퇴근 1시간 전 냉방기기 끄기, 퇴근 때 전산기기 전원차단 등을 실천한다. 우리금융도 본점에 캔·페트병 회수 인공지능 로봇을 운영하며 직원들이 기부한 에코백을 재래시장에 제공해 일회용 비닐봉투 줄이기에 나선다.

KB국민, 청약저축 비대면 가입 이벤트

KB국민은행이 8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777 비대면 신규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리브톡톡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20~39세 고객 중 매주 777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쿠폰 1매를 지급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정정욱 기자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특허:제10-0881171호
흑마늘, 홍삼, 녹용 이시기에 드시면 진짜 좋아요!

흑마늘, 홍삼, 녹용을 드셔 보세요!

어려운 경제! 흑마늘, 홍삼, 녹용 드시고 기운들 나시라고.

저희도 힘들지만 눈물의 파격세일을 단행합니다!

기존의 판매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최소한의 원가만 받겠습니다!

300분 한정 감짝놀랄 파격할인가!

70ml 30포 + 30포 + 30포(총90포) + 흑마늘환(6병) 총9개월분

흑마늘 홍삼 녹용 농축진액



흑마늘 홍삼 녹용 환(丸)



노마진 파격세일가

30포 + 30포 + 30포 + 환(1개월분) X6=총9개월분

89,800원



35년 한방 외길
삼성신약 회장 박차서

의성 내고향
홍삼 흑마늘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성장기의 자녀들
- 연로하신 부모님
-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 공부에 지친 수험생 자녀
- 선천적으로 허약 체질
- 가사노동에 지친 주부



의성 내고향 홍삼 흑마늘 농축진액 70ml X 30포

당사 12년 전통의 연구 개발 노력한
경험으로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전국취급대리점문의 070-4421-5656

제조원: 의성 내고향 흑마늘영농조합 1899-6540

농협) 301-0251-3128-51

한국뉴미디어

택배비3000원

소비자부담